



## 추억의 ‘빨간머리 앤’ 만나러 가요

광주극장·CGV 터미널·첨단서 내일부터 상영

주근깨 투성이에 뽀빠 마른 소녀, 공상하는 걸 좋아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탄을 잘하는 열한살 빨간머리 앤을 추억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30여년전 KBS TV를 통해 만났던 애니메이션 ‘빨간머리 앤’이 영화관에서 상영된다.

10일부터 광주극장과 터미널·첨단 CGV에서 상영되는 ‘빨간머리 앤-그린개 이블로 가는 길’(자막관, 한국어 더빙판 상영)은 ‘미래 소년 코난’, ‘천공의 섬 라퐁탕’의 다카하타 이사오와 미야자키 하야오 콤비가 제작한 50부작 TV 애니메이션

선의 극장판, 시리즈 중 6회까지 이야기를 다카하타 이사오가 직접 재편집, 디지털 리마스터링해 선보인다.

영화는 특정한 남자 아이를 입양하려 했던 매튜 남매가 앤을 고아원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그녀를 받아들이는 과정까지를 담고 있다. ‘빨간머리 앤’이 탄생한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 현지 로케이션으로 그려진 아름다운 배경이 인상적이다. 104년 전 캐나다 소설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쓴 ‘빨간머리 앤’이 원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무등산 관련자료 500점

광주문화재단 오늘 기증식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태)은 9일 오후 6시 빛고을시민문화관 3층 회의실에서 무등산 관련자료 500여점에 대한 기증식을 갖는다.

자료는 박선홍 무등산보존단체협의회 고문이 저서 ‘광주 일백년’, ‘무등산’의 지적재산권을 재단에 기증한 것을 계기로 진행한 무등산 관련 자료 캠페인을 통해 모인 것이다.

기증 자료는 수필가 조동희씨의 ‘무등을 넘으며’, 시인 이종택씨의 시 ‘무등산’, 조선대 임준성 교수는 한시 논문, 배창희 남부대 교수와 가수 정용주씨의 ‘무등산’ 음반과 ‘산산 산’ 음원, 오건규·고 이강화 화백의 무등산 작품집 등이다. 문의 062-670-7457.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광주 총장서립·전남 영암서점

지역서점 문화 활동 지원 대상

광주 총장서립과 전남 영암서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진행한 ‘지역서점 문화 활동 운영 지원’(지원액 800만원) 대상에 선정됐다.

광주 총장 서립의 문화 활동 프로그램은 인문학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용석 상무는 “전남대학교 비정규교수들의 인문학 학술 모임인 ‘무등지성’(회장 장복동 박사)과 연계해 매월 강사를 초청, 1월부터 6월까지 강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암서점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애화(여·56) 대표는 “기존의 책을 판매하는 형태의 서점으로는 경쟁력이 없어 북카페 형태로 리모델링할 생각”이라며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작품의 무게만큼 나를 고민한다

배형경 ‘목시록’전, 2월15일까지 스페이스K

수백 개의 장대모양 철 구조물, 그리고 사이를 넘나드는 인물들. 브론즈의 중량만큼 무거운 작품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조각가 배형경씨가 9일~다음달 15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스페이스K 광주에서 ‘목시록(THE REVELATION)’을 주제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스페이스K 과천(지난해 11 19일~지난 1월4일) 전시이 이은 순회전이다.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것’ ‘마음의 구수’ ‘유추된 단상들’ 등 3가지 시리즈로 브론즈와 스텔로 제작한 인체 조각 10점과 오브제 10점 등 20점이 전시된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것’

배씨는 서울대 조소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10년 김종영 미술관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370-594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평화연극제” 국제적 행사로 키울 것”

정순기 광주연극협회 신임회장

“광주 연극의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는 ‘광주평화연극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극단 뿐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과 결합해 국제적인 행사로까지 키우고 싶어요.”

최근 열린 광주연극협회 정기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제10대 광주연극협회장(임기 3년)으로 당선된 연극배우 정순기(46·극단 더 대표)씨는 “협회 운영진들과 선배, 후배들의 소통과 화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회장은 “전임 회장님이 프로젝트 기획이나, 행정적인 면에서 틀을 잘 잡아와 일하기가 수월하다”며 “협회 행사뿐 아니라 개별 극단들의 취향적인 홍보

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회장은 또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소극장연극제와 대학연극제, 청소년연극제(우수작 공연) 등을 통합해 가을 대표 축제 브랜드인 ‘소극장연극축제’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스무살 무렵, 지금은 고인이 된 손성관씨에게 연기를 배우며 극단 ‘더’를 통해 연극에 입문한 정씨는 2011년 전국연극제 연기상 등을 수상했으며 ‘막차 타고 노을 보다’ 등 100여편에 출연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번듯한 아트센터만 보지 말라 그곳을 채운 문화를 보라

도시의  
아이콘,  
아트센터

본사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책 발간

21세기가 문화의 시대라는 말은 이제 고전적인 명제가 되어버린 것 같다. 문화가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 내지는 정신적·물질적 소산을 포괄한다면, 언제고 문화가 핵심 화두가 아니었던 적은 없다. 마치 정치권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통합’이라는 말처럼 문화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도구가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왜 문화인가. 지금 세계는

아날 ‘그릇’이 어떠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묻는다. 단순히 번듯하게 지어진 아트센터만을 보지 말라는 것이다. 그 이면을 채우고 있는 정치·사회·문화적 제 인프라와 시민들의 관심이 어떤 방향으로 집약되어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그러면서 그러한 에너지가 앞으로 완공될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에 혁신적으로, 창조적으로 투영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1부에서는 국내 도시의 아트센터 사

생한 현장감과 다년간 문화기자로 활동했던 전문가적 식견이 응축돼 있다. 지난 2006년 2월 미 국무성 초청으로 떠난 출장에서 겪은 일화와 이후 국내 지역의 아트센터 등을 방문해서 느꼈던 내용이 컬러풀한 사진과 함께 제시돼 있다.

“이제 아트센터는 단순히 전시회나 공연을 보여주는 하드웨어가 아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화발전소로 진화하고 있다. 이들 아트센터가 품격있는 콘텐츠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객 창출에

인하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저자의 문화적 식견은 지역의 대표 공연장인 광주문화회관에 대한 고연도

담고 있다. 교육프로그램마저 전무한 데다 관객 창출에도 도통 관심이 없어 공연마케팅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얻

제까지 들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아트센터는 한 도시의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종이이자 문화발전소다. 문화와 발전소, 다소 이질적인 두 언어의 조합이 21세기엔 무궁무진한 상상과 창출로 전이된다. 이쯤해서 서두에서 했던 말을 정정한다. 그래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국립극장·링크예술센터 등 국내외 25개 아트센터

생생한 현장감·대표 콘텐츠·성공 노하우 다뤄

총성없는 ‘문화전쟁’을 치르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가 21세기의 삶의 양식이자 존재양식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밥만으로는 살 수 없다. 문화의 양식을 먹고, 입고, 읽고, 소통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 본사 문화선임기자 박진현 편집부 국장이 쓴 ‘도시의 아이콘, 아트센터’(엔터출판·1만2000원)에는 그러한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표면상으로 국내외 도시와 선진국의 아트센터들 둘러보고 이에 대한 정보와 단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자에는 문화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저자는 ‘무엇’을 담아내고 그것을 담

례를 소개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아트센터인 예술의전당을 비롯 유서 깊은 서울의 문화허브 세종문화회관, 중부 공연 예술의 메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남해안 벨트의 랜드마크 GS칼텍스예술마루 등의 대표 콘텐츠와 성공 노하우를 다뤘다.

2부 해외편에서는 아시아 넘버 1을 꿈꾸고 있는 일본, 싱가포르와 세계적인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미국의 유명 아트센터들을 사례로 든다. 여기에는 도쿄 신국립극장과 산토리홀, 싱가포르의 에스플라네이드와 빅토리아 콘서트홀, 미국의 뉴욕 링컨예술센터, 뉴저지 아트센터 등이 망라돼 있다.

책에는 취재와 경험으로 채득된 생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세계적인 아트센터 에스플라네이드 전경. 싱가포르 사람들이 좋아하는 열대과일 두리안을 본따고 해서 현지에선 ‘두리안(The Durian)’으로도 불린다. <사진촬영:모리 히데타카·에스플라네이드 제공>

since 1982

## 창업 30주년 K 국제보청기

###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정품만 취급합니다.

|                  |                  |
|------------------|------------------|
| 본 점 062)227-9940 | 총장점 062)227-9970 |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62)222-9975 |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25,000원 / 33,000원 / 40,000원 / 50,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